



# 꿈에도 소원은 “무재해 달성”

안전관리자로 20여 년 동안 일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결국 안전관리자의 궁극적인 목표와 보람이라면 바로 무재해 달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제조업에서 무재해 1배달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같은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혼자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얻어질 수 없는 무사고, 무재해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다져나갈 때 가능하며 그러한 의식이 다져지도록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1위 주식회사 일화** 구교성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 안전과 함께 한 21년

올해로 47세의 구교성 팀장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일화의 안전관리자로 21년째 일하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1989년 이곳에 입사해 줄 곳 안전업무를 해 온 베테랑 안전관리자다. 산업 안전뿐 아니라 소방설비, 열관리, 가스 등 6개 분야에 걸쳐 선임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안전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한 바쁜 일상에서도 2002년에는 모교인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남다르다. 입사 초 가스분야 안전관리로 안전과 인연을 맺고 다른 동료 안전관리자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축적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난 20여년 간 자기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였다.

## 단 한 번이자 마지막 중대재해

1980년대와 90년까지만 해도 안전에 대한 기업주나 근로자들의 의식은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입사 초 매년 90여 건에 달하는 재해가 발생했고, 그러한 배경에는 목표 생산량 달성과 수율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논리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발생 재해 중 대다수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간단한 골절 정도여서 중대재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져갔다. 90년대 후반부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들 또한 사회적으로 성숙된 의식 덕분인지 안전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재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중대재해 소식,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사고는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장소와 시간에 발생했다. 모두가 쉬는 연휴기간, 13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은 그는 급히 회사로 복귀했고, 17여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믿기지 않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유가족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쉬지 말고 작업에 임했다면, 작업허가서를 발급하지 말았다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2박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지킨 그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 새로운 다짐 그리고 결심

중대재해는 비록 그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자신의 일에 매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주를 비롯한 근로자들 또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졌다. "수일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고생이 컸지만 이 또한 안전관리자로서 감내해야 할 고통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거나 아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후 구교성 팀장은 지금껏 펼쳐온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소한 위험이라도 큰 재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염두한 안전보건시스템 개발과 실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 여, 지난 17년 동안 무재해 1배 달성이 소원이었던 그에게 무재해 2배 달성은 물론 한 달 후면 3배 달성이라는 값진 결실이 찾아온다.

### 안전, 외길 한 평생

20여년의 세월을 안전관리자로 종사해 오면서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와 몸담고 있는 곳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온 그는 아직도 안전이란 것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분야라고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한 없이 쉬울 수 있으나 그 영역이 방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아 항상 사고에 대한 우려가 각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깨달은 안전관리의 Key는 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각 팀이나 라인의 관리감독자에게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현장을 주도하는 그들이 안전의식을 철저히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좌우한다는 것. 그 이유는 각 라인 또는 팀을 이끌고 있는 관리감독자들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각 팀이나 라인에 정착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하는 재해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안전보다도 생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관리감독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 그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토로한다.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하지만 여전히 하루에 8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어 산업재해만큼은 후진국 수준이다. 이제 양적인 경제성장보다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 없이 마음껏 생산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그는 현장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